



재난위험도 경감 계획을 위한 새로운 교육자들의 국제적 모임

UN, 재난위험도 경감 계획을 위한 35명의 교육자 양성

사진출처: UNISDR – The Americas

2016 년 12 월 16 일 파나마 – 남북 아메리카의 16 개국에서 온 재난위험도 관리의 전문가 35 명이 UNISDR 과 GETI 에서 추진하는 강령에 기초한 국제프로그램의 일환인 재난위험도 경감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5 년부터 2030 년까지의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국제적 목표들 중 하나는 이 집중적인 35 시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은 전문화된 기술적 훈련에 대한 각지의 수요의 증가와 함께 2020 년까지 전국적, 지역적인 재난위험도 경감 전략을 보유한 국가들의 수를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다.

UNISDR 남북아메리카사무국의 수장인 **Ricardo Mena** 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자 단체가 재난위험도 경감 모델과 센다이강령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복원력의 구축을 널리 알리고 시행하는데 있어 바로 해당 지역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전념과 헌신을 인정받고 또한 교육자로서 승인받았다.

페루 내각의 회장이자 재난위험도 관리부의 장관인 해군소장 **Julio Pflucker Yépez** 는 워크숍을 일컬어 “센다이강령에 의거한 지역적, 전국적 그리고 민간 부분 계획 이행을 위한 방법론으로 우리 자신의 국가적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는 수단들에 대해 면밀한 지식을 제공하는 풍부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가 비상사태 위원회의 위험도 관리 국립학교의 이사인 **Bélgica Miguelina Tactuk** 박사는 방법론과 워크숍의 결합이 '위험도 관리 국립학교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각 지역의 활동가들을 끌어들이기 뿐만 아니라, 위험도 경감 계획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과 다른 수준의 결정권자들의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재난위험도 감소를 위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대학 네트워크(REDULAC/DDR)의 수장인 **Víctor García** 는 REDULAC 의 워크숍 참여가 다른 분야와의 동맹의 강화 이외에도, 미래의 학문적 제안을 정의하고 복원력 강한 대학들의 지역적 캠페인을 재형성하기 위한 근간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합중국에서의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글로벌 캠페인의 지지자인 **Alexander Mirescu** 가 “미주연합의 뉴욕과 뉴저지와 같은 몇 개의 주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자연 재해의 증가를 고려하면, 점점 더 많은 지역들이 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함을 경감시킬 새로운 메커니즘을 찾고 있으며, 그들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워크숍에서 제안하는 것과 같은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한 훈련에 흥미를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지역적 워크숍 “센다이강령 이행: 재난위험도 감소 계획 공식화”는 국제개발처의 외국재난지원국(USAID/OFDA)와 유럽위원회의 인도적 지원과 시민보호국(ECHO), 그리고 UNISDR-GETI 와 여섯 국제적 조력자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관련링크